

3. 폐 과오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1례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ulmonary Hamartoma

- A case report -

순천향 대학병원 해부병리과

김 숙, 박정자, 진소영, 이동화

과오종은 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방사선학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에 동전모양으로 보이는 단독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간혹 암종이나 결핵 등의 다른 결절성 질환과 감별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폐의 세침흡인 세포 검사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치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과오종이 폐의 변연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이 비교적 쉽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46세의 평소 건강했던 여자로서 검진센터에서 우연히 폐의 단독성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중 3개월 후 추적 검사 결과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내원 하였다. 흉부 X선 사진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상 우측 상엽에 약 2×2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하고 등근 결절이 관찰되어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였다.

세포 도말 배경은 혈성이었고 흡인되어 나온 세포들은 간엽조직과 상피세포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간엽조직은 점액성 기질을 보이는 연골 조직과 지방 조직 및 방추형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피 세포들은 대부분 핵이 둥글고 핵막이 평활하며 균일한 핵질을 보였다. 폐 과오종 진단 하에 우측 상엽 후절부 췌기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육안적으로 종괴는 흉막에 가까운 폐 실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위와 경계가 명확한 충실성의 황백색 결절로서, 조직학적으로 종괴의 대부분은 성숙한 연골 조직이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지방조직, 평활근 조직 및 호흡상피로 구성된 전형적인 폐 과오종이었다.

4. 침 생검으로 진단된 전이된 활막육종의 1례 보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강길현, 강동욱, 서광선, 강대영

활막육종은 주로 하지나 서혜부 또는 상지의 연부조직에서 생기는 드문 악성종양으로 진단당시 흔히 폐와 흉막에 광범위한 전이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침생검으로 다른 방추세포 육종과의 감별진단은 매우 어렵다. 본원에서 하지의 활막육종이 폐로 전이를 보인 예에 대한 침 생검을 시행한 1례를 경험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4세 남자로 3년전부터 축지된 오른쪽 경골 전외측부에 엄지손가락만한 크이의 종물